



(미국사무소, 2026 May)

1 과학기술 R&D · ICT 연구 동향

1) 과학기술 R&D · ICT 분야

□ 고체에서 순간적으로 액체처럼 흐르는 물질의 원리

-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(Argonne National Laboratory)와 시카고대 연구진이 물질이 고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특정 순간 액체처럼 흐르는 ‘유연화(yielding)’ 현상의 원리를 규명했음.
 - 이번 연구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(PNAS,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)에 게재됐으며, 케첩 · 치약 · 페인트 · 콘크리트 · 3D 프린팅 잉크 · 차세대 배터리 전극 등 다양한 소재에서 나타나는 유연화 현상에 주목했음.
 - 연구진은 강력한 X선 분석 장비와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물질 내부 입자의 움직임을 정밀 추적했음.
 - 분석 결과, 입자 간의 미세한 인력과 반발력 차이가 물질의 흐름 특성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확인됐음.
 - 일부 물질은 외부 힘이 가해질 때 부드럽게 흐르지만, 일부는 불균형하게 움직이거나 다시 굳는 현상도 나타났음.
 - 연구진은 이번 성과가 소비재 품질 개선과 제조 공정 최적화, 신소재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5-tiny-big-effects-particle-interactions.html>

□ 양자 회로 성능 저하 원인을 정밀 분석하는 기술

- MIT 연구진이 양자 회로의 성능 저하 원인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기술을 개발했음.
- 이는 국제학술지 Nature Physics에 게재됐으며, 양자 회로 왜곡을 유발하는 ‘2차 고조파 보정(second-order harmonic corrections)’ 현상을 정밀 측정하는 장치를 제작한 것이 핵심임.
- 연구진은 해당 장치를 통해 회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과 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.
- 특히 이 기술은 양자 회로 설계 단계에서 성능 저하 요인을 사전에 보완하고 최적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대규모·고복잡도 양자컴퓨터에서는 미세한 회로 왜곡도 전체 시스템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, 정밀한 분석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.
- 연구진은 예상하지 못한 회로 내부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제어하는 과정이 안정적인 양자컴퓨터 개발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.
- 이번 성과는 향후 더욱 정밀하고 안정적인 차세대 양자컴퓨터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5-quantum-circuit-exposes-warping.html>

□ 환경친화적 AI 이용 방법 설계

- 오레곤주립대(OSU) 연구진이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 특정 설계를 적용하면 사용자들의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.
- 이번 연구는 학술지 Science Communication에 게재됐으며, AI 시스템이 에너지 소비와 환경 영향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인식시키는지에 주목했음.
- 연구진에 따르면 대규모 언어모델(LLM) 학습에는 약 120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며, AI 이미지 한 장 생성에도 스마트폰 한 번 충전에 가까운 전력이 소모되는 것으로 분석됐음.
- 연구진은 이용자가 AI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기존 이미지 검색을 먼저 수행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입력 과정을 거치도록 시스템을

설계했음.

- 그 결과 사용자들이 불필요한 AI 사용을 줄이고, AI 활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음.
- 연구진은 현재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에너지 사용량이나 환경 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.
- 이번 연구는 향후 AI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환경 영향을 고려한 사용자 경험(UX)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.

※ <https://techxplore.com/news/2026-05-tweaks-responsible-ai-environmental.html>

□ 이산화탄소를 재생 가능 메탄으로 전환하는 반응기

-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진이 이산화탄소(CO₂)를 재생 가능한 메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반응기 설계 기술을 개발했음.
- 이번 연구는 학술지 Water Research에 게재됐으며, 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메탄을 생산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췄음.
- 연구진이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 실험실 규모 대비 약 10배 큰 규모로 확장됐음에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연구진은 해당 기술이 미생물 전기 합성(Microbial Electrosynthesis) 시스템 기반으로, 대규모 재생에너지 저장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.
-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요 성분인 만큼 기존 가스 저장·운송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.
- 이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성한 뒤, 미생물이 이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함.
-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저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음.

※ <https://techxplore.com/news/2026-05-reactor-renewable-methane-carbon-dioxide.html>

□ 남성 호르몬, 뇌종양 성장 억제에 효과

- 미국립보건연구원(NIH)의 지원을 받은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진이 남성호르몬이 뇌종양 성장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.
-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Nature에 게재됐으며, 테스토스테론 등 안드로젠 호르몬 감소가 교모세포종(Glioblastoma) 성장과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했음.
- 연구에 따르면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질 경우 국소 염증 반응과 스트레스 호르몬 생성이 증가하면서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연구진은 1,300명 이상의 남성 교모세포종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으며, 테스토스테론 보충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생존율 향상 가능성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.
- 교모세포종은 남성에게 더 흔하게 발생하고 치명률도 높은 대표적인 악성 뇌암으로 알려져 있음.
- 기존에는 남성호르몬이 오히려 종양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, 이번 연구에서는 반대 결과가 확인됐음.
-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향후 교모세포종 치료 전략과 호르몬 기반 치료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nih.gov/news-events/news-releases/nih-funded-study-suggests-testosterone-suppresses-brain-tumor-growth-males>

2) 인문 · 사회분야

□ 교육 내 AI 활용 확대로 학생 기초 지식 약화 우려

- 교실 내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기초 지식과 사고력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Critical AI in K-12 Classrooms 공동 저자들은 AI 활용 교육과 함께 윤리 · 사회적 영향 · 편향성 등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.
- 저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AI를 도입할 때마다 해당 기술이 실제 교육

목표에 적합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- 또한 기술 기업들의 주장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, AI가 실제로 학생·교사·교육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.
- 특히 교사 양성과정에 AI의 사회적·환경적 영향과 알고리즘 편향성 등을 분석하는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음.
- 저자들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능력을 넘어, AI의 한계와 영향까지 이해하는 ‘비판적 AI 문해력(critical AI literacy)’을 길러주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5-authors-classroom-ai-loss-foundational.html>

□ 보편적 우편투표가 양당 모두의 투표율 제고 효과

- 캘리포니아공대(Caltech) 연구진이 보편적 우편투표 제도가 민주·공화 양당 모두의 투표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.
- 이번 연구는 학술지 The Journal of Politics에 게재됐으며,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음.
- 분석 결과 해당 정책은 전체 투표율을 약 3~4%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민주·공화 양당 소속 유권자의 참여 증가 효과가 무당층보다 더 크게 확인됐음.
-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민주당이 특별한 정치적 이점을 얻는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.
- 이는 우편투표 확대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기존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로 평가됨.
-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우편투표 정책 변화와 유권자 참여 양상도 함께 검토했음.
- 연구 결과는 우편투표 제도가 특정 정당의 승패보다 전반적인 유권자 참여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5-universal-voting-mail-voter-turnout.html>

□ 판사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

- 럿거스대 연구진이 법적 판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‘유감·죄책감 편향(remorse bias)’ 문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.
- 이번 연구는 학술지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에 게재됐으며, 판사 등 법조인이 피고인의 유감이나 죄책감 표현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에 주목했음.
- 연구진은 판사의 암묵적 편견과 사회적 고정관념이 이러한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.
- 또한 범죄 이력, 정신건강 상태, 약물 사용 여부, 인종·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연구진은 이 같은 편향이 형량 결정과 법적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.
- 이번 연구는 사법 시스템 내 주관적 판단 요소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5-remorse-bias-legal-decision.html>

□ 프린스턴대, 인공지능(AI)과 인문학 융합 연구 본격 확대

- 프린스턴대가 인공지능(AI)과 인문학을 결합한 융합 연구를 본격 확대하고 있음.
- 대학은 최근 프린스턴 인공지능 연구소(Princeton Laboratory for Artificial Intelligence)와 뉴저지 AI 허브(New Jersey AI Hub) 간 협력을 통해 AI 연구 역량을 강화했음.
- 이번 협력의 핵심 목표는 문학·역사·법학·음악·건축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임.
- 연구진은 AI를 활용해 고대 문헌 분석, 시(詩) 연구, 법률 자료 해석 등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음.
- 특히 인간의 사고·문화·언어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AI 기반 융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- 대학 측은 AI가 인문학 연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, 연구의 범위와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다.

- 이번 움직임은 AI 기술이 과학·공학 분야를 넘어 인문사회 분야 연구 혁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princeton.edu/news/2026/02/23/ai-and-humanities-across-princeton-campus-era-collaboration-underway>

□ 스탠퍼드대, 역사학자 주도 AI 인문학 프로젝트 추진

- 스탠퍼드대에서 역사학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AI 기반 인문학 연구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.
 - 이 프로젝트는 역사학 연구 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AI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며, 복잡한 역사 문서와 다층적인 기록을 AI가 보다 정교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임.
 - 연구진은 기존 대규모 언어모델(LLM)이 역사 자료의 맥락과 시간적 층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음.
 - 새 시스템은 단순 문헌 분석을 넘어 필기, 주석, 그림 등 다양한 기록 흔적까지 함께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 - 이를 통해 역사 자료 속 관계성과 맥락, 기록 생성 과정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- 연구진은 이번 접근법이 역사학뿐 아니라 문학·철학·문화연구 등 인문학 전반의 연구 방법론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.
 - 이번 프로젝트는 AI를 단순 정보 처리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기록과 사고를 이해하는 인문학 연구 도구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음.

※ <https://humsci.stanford.edu/feature/historian-leads-project-design-new-ai-architecture-humanities-research>

2 과학기술 R&D · ICT 정책 동향

1) 과학기술 R&D · ICT 분야

□ 미 정부, 연방 계약업체 반(反) DEI 조항 도입 추진

- 미 연방정부가 연방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반(反) DEI(Diversity, Equity,

Inclusion) 조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.

-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, 새 계약 조건에는 계약업체가 인종차별 가능성이 있는 DEI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음.
- 또한 정부 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될 예정임.
- 특히 하청업체의 준수 책임까지 원청 계약업체에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
- 행정부는 일부 DEI 정책이 비효율적이고 불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, 연방 차원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.
- 반면 대학 및 기업단체 연합은 해당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DEI 활동을 인종차별과 동일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음.
- 이번 조치는 연방 조달 정책뿐 아니라 대학·기업의 다양성 정책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aip.org/fyi/the-week-of-may-11-2026>

□ 백악관, NSB 위원 전원 해임 이유 설명

- 백악관이 미국 국립과학위원회(NSB) 위원 24명 전원을 해임한 배경에 대해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.
- 백악관은 2021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, 상원 인준을 받지 않은 위원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.
- NSB는 미국 국립과학재단(NSF)의 정책 방향과 연구 전략을 감독하는 독립 자문기구로, 미국 과학 연구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음.
- 이번 해임 조치는 사전 공지 없이 이뤄지면서 과학계와 학계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- 연구자들은 NSF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.
- 일부 과학자들은 향후 NSF가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을 경고하며, 연구 정책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.
- 현재 NSF는 대규모 예산 삭감 압박과 지도부 공백 문제까지 겹치면서 조직 운영과 연구 지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.

□ 미 연방정부 2024 회계연도 R&D 지출 전년 대비 4.4% 증가

- 미국 연방정부의 2024 회계연도 연방 연구개발(R&D) 지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, 2025 회계연도에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.
- 미국 국립연구재단(NSF) 산하 과학공학통계센터(NCSES) 조사에 따르면, 2024 회계연도 연방 R&D 지출 총액은 전년 1,861억 달러에서 1,942억 달러로 약 4.4% 증가했음.
- 반면 2025 회계연도 예비 데이터에서는 연방 R&D 지출이 전년 대비 약 0.1% 감소한 1,941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음.
- 특히 국방부의 R&D 지출은 2023년 855억 달러에서 2024년 979억 달러로 약 14.4% 증가하며 전체 연방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주도했음.
- 그러나 2025년에는 대부분 정부 기관에서 R&D 예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, 상무부의 연구개발 지출 증가가 일부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.
- 이번 통계는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기조가 국방·산업 경쟁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.

※ <https://nces.nsf.gov/pubs/nsf26317>

□ 미 에너지부, 유전 석유 회수율 향상 기술 개발 지원

- 미 에너지부(DOE)가 유전의 석유 회수율 향상을 위한 대형 연구 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.
- 에너지부는 노스 다코타대 에너지·환경 연구센터(University of North Dakota Energy &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)에 3,6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음.
-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실험실 분석, AI 기반 모델링, 현장 시험 등을 결합해 탄소 포집 기반 원유 회수 기술을 개발하는 것임.
- 현재 셰일층 유전에서는 매장 석유의 약 10%만 회수되고 있어, 기술 개선을 통한 생산 효율 향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- 연구진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EOR(Enhanced Oil Recovery·석유증진회수)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EOR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유전에 주입해 남아 있는 원유의 이동성을 높이고 회수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임.
- 에너지부는 해당 기술이 향후 수십억 배럴 규모의 추가 원유 생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.

※ <https://www.energy.gov/hgeo/articles/energy-department-invest-36-million-enhanced-oil-recovery-program-university-north>

□ 북한 화산 연구, 국제 과학외교의 성공 모델로 주목

- 북한 화산 연구 사례가 국제 과학외교(science diplomacy)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.
- Science Business는 북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가 정치적 긴장 상황 속에서도 국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음.
- 영국·미국·북한 연구진은 백두산 지역의 지진 및 화산 활동 데이터를 공동 분석했으며, 이를 통해 과학 협력이 북한의 폐쇄적인 환경에서도 외교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음.
- 전문가들은 과학외교가 기후변화, 보건, 재난 대응 등 국경을 초월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.
- 특히 정치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도 과학 협력이 신뢰 구축과 대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음.
- 기사에서는 과학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장기적으로 외교·안보 관계 개선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.
- 이번 사례는 과학 연구가 단순 학술 활동을 넘어 국제 협력과 외교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.

※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international-news/science-diplomacy-lessons-north-korean-volcano>

2) 인문·사회분야

□ 미 법원, 국립인문기금(NEH) 지원금 취소 조치 위헌 판결

- 미 연방법원이 국립인문기금(NEH) 지원금 취소 조치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음.
- 이번 조치로 취소된 지원금 규모는 1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, 학자·작가·

연구기관 등 다양한 인문학 연구 주체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.

- 법원은 1,400건이 넘는 NEH 지원금 취소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음.
- 또한 법원은 정부효율부(DOGE)가 법적 권한 없이 지원금 삭감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으며, 지원금 문제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한 점도 문제로 언급했음.
- 판결에 따라 정부는 기존 지원금 취소 통지를 철회해야 하며, 추가적인 예산 전용 조치에도 제한을 받게 됨.
-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의 연구·문화 지원 정책뿐 아니라 AI 활용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책임성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insidehighered.com/news/quick-takes/2026/05/07/federal-judge-restores-millions-neh-grants>

□ 미 NEH, 건국 250주년 기념 전국 학생 미술대회 지원

- 미국 국립인문기금(NEH)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규모의 학생 미술대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.
- NEH는 이번 대회를 위해 총 73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.
- 대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, 참가자들은 미국 역사 속 주요 인물 250명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게 됨.
-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역사 이해를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.
- 또한 용기·리더십·공공봉사 정신 등 미국의 핵심 가치를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했다.
- NEH는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의 핵심 청소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.
- 이번 대회는 역사 교육과 예술 활동을 결합해 청소년들의 시민 의식과 역사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문화·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neh.gov/news/neh-partners-freedom-250-sponsor-national-student-art-competition-american-heroes>

□ 미 NHC 학술 집필 지원 학자 선정

○ 미국 NHC(National Humanities Center)*가 제2회 학술 집필 연구소(Scholarly Writing Institute) 프로그램 참가 학자 20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.

※ NHC(National Humanities Center)는 민간 비영리 기관으로, 인문학 전 분야의 심층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연구소임

- 선정된 연구자들은 미국 10개 주의 16개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으로, 오는 7월 초 9일간 NHC에 머물며 집중 연구·집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.
-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첫 행사 성공을 바탕으로 확대 운영되는 것으로, 참가자들에게는 개인 연구실과 전용 집필 공간이 제공됨.
- 또한 전문 글쓰기 코치와 학술 출판 관계자들의 개별 컨설팅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며, 참가자들은 향후 연구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도 제공받게 됨.
- NHC는 이번 프로그램이 학자 간 지적 교류와 공동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.
- 이번 연구소 프로그램은 학술 연구의 질 향상뿐 아니라 연구자들의 장기적인 집필·출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인문학 연구 지원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.

※ <https://nationalhumanitiescenter.org/nhc-2026-scholarly-writing-institute-participants/>

□ 미국 정치학회, 일본 정치학회 신진 연구자 공동 프로그램

○ 미국 정치학회(APSA)가 일본 정치학회(JPSA)와 함께 미·일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고 있음.

- 이번 프로그램은 인구 변화가 사회·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형 연구(civic-engaged research)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임.
- 행사는 2026년 9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APSA 연례학술대회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.
- 참가자들은 연구 발표와 출판 준비, 국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 활동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게 됨.
- 또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의 교류 프로그램과 공개 세션도 함께 운영될 계획임.

- 일본 재단(Japan Foundation)의 지원을 통해 최대 16명의 참가자에게 항공료와 숙박비도 제공될 예정임.
- APSA는 이번 프로그램이 미·일 젊은 연구자들의 국제 협력과 공공 참여형 연구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※ <https://politicalsciencenow.com/call-for-applications-jpsa-apsa-working-group-on-civically-engaged-research-for-critical-issues-in-society-deadline-june-1-2026/>

□ 아동 연구 지원을 위한 레고 재단 펠로우십

- 레고 재단 펠로우십(LEGO Foundation Fellowship)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임.
- 이 펠로우십은 교육학, 심리학, 공중보건, 데이터 과학, 인도주의 연구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며, 아동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신진 및 중견 연구자들을 지원함.
- 선정된 펠로우들은 3년간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되며, 연구자 간 협력뿐 아니라 정책·실무 분야 관계자들과의 교류에도 참여할 수 있음.
- 또한 펠로우십 참여자들은 학제 간 연구와 공동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글로벌 학자 커뮤니티 활동에도 함께하게 됨.
- 레고 재단 펠로우십 운영은 사회과학연구위원회(SSRC·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)가 맡고 있음.
- 프로그램은 아동 발달과 교육,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혁신적 연구를 장려하고,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현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ssrc.org/programs/the-lego-foundation-fellowship/>

3 벤처·기술사업화 동향

□ 미 에너지부 소형모듈원자로(SMR) 개발 지원

- 미국 에너지부(DOE)가 소형모듈원자로(SMR) 산업 확대를 위해 8개

기업에 총 9,4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.

- 지원 대상은 차세대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(Gen III+ SMR) 개발 기업들로, 에너지부는 인허가 절차, 공급망 구축, 부지 확보 등 미국 원전 산업의 병목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음.
- 이번 사업은 2030년대 신규 원전 건설 확대를 대비한 원전 공급망 구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.
-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원전 신규 발주 확대와 SMR 상용화 속도를 높일 계획임.
-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책을 ‘미국 원자력 르네상스(American Nuclear Renaissance)’ 전략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음.
- 에너지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제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·AI 산업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.
- 이번 지원은 미국이 차세대 원자력 기술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energy.gov/articles/energy-department-awards-94-million-american-companies-help-expedite-deployments-small>

□ 미 에너지부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혁신 지원

- 미 에너지부(DOE)가 수력발전과 해양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음.
-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상용화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특히 수력발전 기술이 실험 단계에서 실제 시장 진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.
- 에너지부 산하 수력기술국(WPTO)은 창업 지원과 기술 가속화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, 최근 수력·해양에너지 분야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젝트 8건을 선정했음.
- 지원 대상에는 알래스카 지역 상용화 프로젝트, 대학 기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, 해양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됐음.
- 미국 정부는 수력발전과 해양에너지가 전력망 안정성 강화와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.
- 또한 해당 분야가 재생에너지 다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- 이번 지원 확대는 미국이 차세대 청정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음.

※ <https://energiesmedia.com/doe-hydro-innovation-support-programs-energy/>

□ 미 SBIR · STTR 프로그램 신규 규정 도입

- 미국 의회가 중단됐던 중소기업 혁신연구(SBIR) · 중소기업 기술이전(STTR) 프로그램을 재가동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음.
- SBIR · STT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(R&D)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핵심 혁신 지원 제도로 운영됐음.
- 새 법안은 해당 프로그램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, 약 6개월간 이어졌던 신규 지원 중단 상태를 종료했음.
- 가장 큰 변화는 ‘전략적 혁신 지원(Strategic Breakthrough Awards)’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, 일부 기업은 최대 3,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음.
- 미국 정부는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안보 심사도 대폭 강화했음.
- 이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외국 자본 투자 현황, 해외 기술 제휴 관계, 사이버보안 체계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해야 함.
- 또한 반복적으로 정부 과제만 수주하는 이른바 ‘SBIR 밀(SBIR Mill)’ 문제를 막기 위해 신청 건수 제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음.
- 이번 개편은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와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jdsupra.com/legalnews/sbir-sttr-program-restarted-with-new-1744791/>

□ 미국 스타트업, 우주 기반 의약품 제조 사업 본격화

- 미국 우주 스타트업 바르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스(Varda Space Industries)가 우주 기반 의약품 제조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있음.
- 이 회사는 미세중력 환경에서 신약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상업용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, 최근 바이오기업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(United

Therapeutics)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음.

- 그동안 우주 제조 실험은 국제우주정거장(ISS)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부 주도 연구에 머물러 있었음.
- 연구진은 무중력 환경에서는 약물 결정(crystal) 구조가 지구 환경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.
- 이러한 특성은 약물의 안정성이나 효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- 바르다는 우주 환경을 활용한 상업용 제약 생산이 향후 바이오·우주 산업 융합 분야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.
- 이번 협력은 민간 우주 산업이 단순 발사 서비스에서 나아가 첨단 바이오 제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technologyreview.com/2026/05/13/1137153/varada-united-therapeutics-drug-manufacturing-in-space/>

□ 로빈후드, 두 번째 개인투자자 대상 벤처 펀드 IPO 준비

- 미국 핀테크 기업 로빈후드(Robinhood)가 개인투자자 대상 두 번째 벤처 펀드 기업공개(IPO)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- 회사는 신규 펀드 ‘RVII’를 위해 비공개 상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, 이번 펀드는 기존 후기 단계 기업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초기·성장 단계 스타트업까지 투자 범위를 확대했음.
- 특히 최근 AI 스타트업 투자 열풍이 펀드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음.
- 로빈후드의 첫 번째 벤처 펀드는 오픈AI(OpenAI), 스트라이프(Stripe) 등 주요 비상장 기술기업 지분에 투자한 바 있음.
- 회사는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비상장 기술기업 투자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.
- 첫 번째 펀드 IPO에는 15만 명 이상의 개인투자자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음.
- 업계에서는 로빈후드의 이번 움직임이 벤처투자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.

※ <https://techcrunch.com/2026/05/11/riding-an-ai-rally-robinhood-preps-second-retail-venture-ipo/>